
第50回서울特別市(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1年9月10日(火) 午前10時

場所 運營委員會

議事日程

1. 現況報告(文化觀光局·世宗文化會館)
 2. 雲峴宮土地買入同意案
 3.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現況報告(文化觀光局·世宗文化會館) ... 26面
 2. 雲峴宮土地買入同意案(서울特別市長提出) ... 36面
 3.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64面
-

(10時 08分 開議)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現況報告(文化觀光局)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 第1項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關係官의 報告를 들은 후에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文化觀光局長님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文化觀光局長입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오늘 3日 本會議에 오늘은 저희 業務를 把握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는 찾아가서 미리 이렇게 저희들 하는 일을 報告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모시고 報告를 드리게 돼서 一便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委員 여러분에게 報告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業務報告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 같이 勤務하는 幹部紹介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俞永植 文化課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俞永植 文化課長 人事)

(一同拍手)

金根培 文化財課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根培 文化財課長 人事)

(一同拍手)

李榮宰 觀光課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榮宰 觀光課長 人事)

(一同拍手)

그 다음 저희局에 國際交流課가 있습니다마는 國際交流課長이 지금 海外出張中이기 때문에 李宗起 國際交流係長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李宗起 國際交流係長 人事)

(一同拍手)

저희 局의 總體庶務를 담당하는 趙暻鎬 文化係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趙暻鎬 文化係長 人事)

(一同拍手)

그 다음 業務報告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委員님들, 저도 이제 文化觀光쪽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 우리 文化課長도 저하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兪永植 文化課長은 원래 文化課長을 미리 담당을 하신 바가 있고 또 文化業務에 대해서 조예가 깊습니다. 이래서 委員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상세한 報告를 드리기 위해서 主務課長인 文化課長을 통해서 報告를 드렸으면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委員 있음)

양해를 해 주시면 文化課長이 業務報告를 드리고 나중에 또 委員님들 물으실 일이 있으시면 저도 答辯을 드리고 擔當課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는 委員 있음)

○文化課長 兪永植; 文化課長입니다. 文化課長이 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油印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文化觀光局 現況報告

(報告中斷)

(뒤에 실음)

.....

○孫馥 委員; 저 잠깐 긴급.....

죽 이것이 報告하시는 중에 우리 委員들이 좀 묻고 質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죽 다하고 하셨으면 좋겠지마는.....

○委員長 權會榮; 孫委員님, 報告를 다 받고 質疑를 하도록.....

○孫馥 委員; 다 받고?

○委員長 權會榮; 네.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孫馥 委員; 네. 하세요.

○委員長 權會榮; 계속해 주세요.

.....
(報告繼續)

文化觀光局 現況報告

(報告中斷)

(뒤에 실음)

.....
다음에는 傳統文化的 保全傳承 문제인데 이것은 文化財課長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文化財課長으로 하여금 報告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文化財課長 全根培; 계속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繼續)

文化觀光局 現況報告

(報告中斷)

(뒤에 실음)

.....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觀光課長 李榮宰; 觀光課長 李榮宰입니다. 觀光業務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繼續)

文化觀光局 現況報告
(報告中斷)
(뒤에 실음)

.....
觀光業務는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다음은 國際交流課 所管으로 國際 大都市와의 交流 및 協力增進 관계에 대해서 課長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繼續)
文化觀光局 現況報告
(報告中斷)
(뒤에 실음)

.....
國際交流業務關係를 간단히 報告드리고 그 다음에 油印物에 世宗文化會館 所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館長님이 별도로 業務報告를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文化觀光局 所管業務를 간단히 報告드렸습니다. 委員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推進하고 있는 業務에 물으실 말씀이나 충고주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文化觀光局長님과 각 課長님께서 業務報告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委員님 여러분께서 業務報告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喆鎬 委員; 質問 있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李喆鎬 委員.....
○李喆鎬 委員; 文化·藝術分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보면 서울 600年 文化事業推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作家이기 때문에 우선 文學部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韓國 文人協會를 통해서 600年史를 기념하기 위해서 文化作品 公募를 隨筆部門을 詩部門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懸賞公募죠. 그런데 그것이 今年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600년이 되는 해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審査委員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時事編纂이 있습니다. 時事編纂에 보면 全部 7個 部分으로 7個 事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詩史編纂속에는 그 서울 600年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 일어나는 文學世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소재로 하는 文學作品을 選別해서 集大成 해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세계 어느 큰 도시에도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文學作品 詩, 戲曲, 小說을 포함한 隨筆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지금 資料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編纂事業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政府次元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저희 3千 文學人들을 애타게 하고 또 藝總에서도 애타게 하는 事件중의 하나입니다. 즉 文學人을 포함한 藝術人의 遺跡, 적어도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藝術人들의 生家나 死亡地, 혹은 成長地 등을 紀念하는 紀念牌라도 세우기 運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파리라든지 이러한 대도시에 가면 반드시 有名作家의 生家가 保全되어 있는가 하면 하다 못해 그 誕生地에는 紀念牌라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서울市에 과연 이러한 사업을 빨리 600年을 紀念

하는 처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현재 構想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여기에는 構想하지도 않고 있는지 이것을 두번째로 質問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公演藝術이다 展示藝術을 위한 文化空間 확보에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文化藝術 博物館 했는데 여기 보면 너무 美術部分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市民 參與文化 프로그램 活性化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가'에도 시민 美術講座가 있고 '나'에도 市立美術館 展示計劃이 있고 '다'에도 市民 미술잔치 마련, 또 하다 못해 거리 속의 藝術에도 市民 및 靑少年 했는데 여기에도 美術人, 職場, 美術同好人 이렇게 해서 美術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 여기에 藝術分野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文學, 美術 이렇게 순서를 잡아 나가 가지고 그 분야가 이렇게 방대한데 文學, 美術, 音樂, 演劇, 映畫, 舞踊, 寫眞 이렇게 그 숫자가 많은 분야 중에서 구태여 이러한 그 美術部分에만 偏重을 해서 豫算을 執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文學遺産을 整理 展示할 수 있는 그야말로 文學博物館이 필요한데 이 博物館 계획 속에는 유독 文學博物館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좀 더 우리 서울이 세계 國際都市化에 발맞추려면 구색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와 아울러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文化賞部分이 4個分野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藝總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文人協會에서도 직접 듣고 나왔습니다. 이 文化賞部分에는 文化行政事賞이 하나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美術家든

文學이든 音樂家든 하나의 作家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作家들의 創作意慾과 요건을 진작시키는 뒤에 숨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필두로 해서 文化行政賞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만약에 市에서 할 수가 없다면 藝總이나 文人協會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해서 안 되면 그런 대로 좀 支援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質問으로는 서울 國際文學 페스티벌이라고 할까요. 이 祝典을 企畫할 그런 意思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文學藝術이 있는 서울, 이것은 현재 서울의 비대성으로 봐서 또 서울의 有名도로 봐서 이것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동안에 우리 서울에서는 世界詩人大會라고 하는, 歷史的 足跡을 남길 수 있는 큰 大會를 치른 바도 있고 또 國際 팬클럽大會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울 市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行事支援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 市 자체 行事開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必要性은 없는 것이, 이런 것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세계적 大都市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의 文化藝術 및 文學의 必然性 때문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國際文學祝典開催의 計劃은 없는지, 없다면 이러한 構想을 갖고 있는 면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質問 보았습니다.

瑞草乙의 李喆鎬 委員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먼저 計劃과, 또 없다면 할 수 있는 與

件은 조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 소상히 答辯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한꺼번에 다른 분도 質疑하신 뒤에 하시죠.

(「일괄해서」 하는 委員 있음)

一門一答 形式이 좋을 것 같지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되지요」 하는 委員 있음)

(「質問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問하세요.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88을 기해서 세계적인 都市로 각광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드디어 民主人, 自由人, 世界人, 文化人 이러한 그 歷史的인 世界的인 位相 속에서 우리가 발돋움을 한 이때에 우리 스스로 文化와 또 教育에 대해서 우리가 分科를 맡은 이상 보다 더 積極的인 자세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슬기를 한데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發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3페이지 '91年 主要業務計劃 基本方向에서 외국의 유명 藝術團體公演, 學術大會 등 유치 이것이 이제 물론 來年부터 漸進的으로 이것을 이제 스케줄을 짜신다 할 때에 디렉터라든가,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市議員들의 어떠한 역할도 우리 주관하는 執行機關에서도 勘案을 하셔서 어떤 나름대로의 委員會라든지 아마 이런 큰 역사적인 文化事業을 推進을 하려면 特別委員會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스탠딩코미티를 만들어야 될 것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市議員의 意見を 모을 수 있도록 몇 사람을 參與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市民美術잔치 '다'에 이것이 陶藝 한 마당잔치, 거리 속의 藝術 해가지고 藝術은 藝術인데 美術을 중심으로 해서 藝術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陶藝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區친선競演大會라든지, 서울市 말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區 親善競演大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美術關係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더 넣어서 우리가 하면 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우리가 그 유엔加入 경축 여러 가지 行事를 하시는 것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적극 저도 여기에 대해서 贊成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各國 會員國旗가 행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국 大使館들의 협조를 받아서 각국의 傳統衣裳을 입은 그 旗를 든 양반들이 서서 나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未修交國인 北韓,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여분으로 뒤에 우리 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조금 연구를 안 하고 접촉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4'에 문화 예술 創作活動 조장에 있어가지고 所要豫算이 1億 5,000萬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안 된 가운데 어쨌든 쓰임새가 다 단체별로 支援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具體的인 團體別支援現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 文化藝術振興基金에 基金은 어떻게 造成이 되고 그 內容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의 '라'에 서울特別市 文化賞施賞 4個 部門, 12個 部門이 이것이 물론 지난 신문을 보고하면 되겠지마는 이 區分이 明示가 안 되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觀光振興 部門에 있어 갖고 물론 여러 가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交通部 혹은 觀光協會, 觀光公杜 서울시 이런, 하기야 여러 官署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의 하는 業務가 상당히 샌드위치 狀況에서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무슨 位相도 없고 무엇인가 그냥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무엇인가 좀 쫓대를 갖고 화끈하게 하는 맛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가 아까 말씀대로 國內外 500餘個 業體, 뭐 交通部에 一般旅行 290業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해야 될 觀光振興 혹은 여러 가지 多目的한 우리의 健實한 運營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조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해서 아까 설명도 또 그러셨고 해서 이러한 것이 조금 더 具體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 서울시가 해야 할 자기 責務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 갖고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明確하게 對答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세계 大都市와 交流 및 協力增進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 없이 다 프렌드리 혹은 시스트리 릴레이션쉽을 다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특히 '88을 기해 가지고 유명한 世界的인 都市가 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입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는 市議員 地方自治時代에 市の 市

議員도 탄생이 되고 市議員도 이러한 姊妹結緣이라든지 友好結緣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祝祭를 같이 참여하는, 同參하는 그러한 機會를 주십사 하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見解가 어떠신지 그리고 또 먼저 포포프市長이 오셨을 때 물론 金璨會議長께서 代表로 參與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어차피 主管하고 있는 것이 文化教育常任委員會이니까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招請을 해 주었으면 참 좋았다 라고 먼저 新聞을 보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러한 하나 하나를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고 앞으로 올 어떠한 希望的인 事項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意見을 같이 해서 收斂을 하자는 뜻으로 이러한 意見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特別市 名譽市民證關係는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1페이지의 大都市의 概念이, 이 경우는 都市學的인 次元보다도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 28個 大都市의 概念이 어떤 그 라인에서 대신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 다음에 六星 禮遇 招請行事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까 얘기하시는데 질문하려다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質問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또 質問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業務報告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業務報告하신 것은 '91年度 重點事業 內容만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文化觀光局에서 이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課別 業務分掌表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民願業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業務가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이렇게 委員會가 생겨가지고 文化觀光局에서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소상히 알려면 課別 業務分掌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條例도 研究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더 發展的인 그런 側面에서 研究하려면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문화프로그램에 市民參與를 많이 해야 하는데 市民이 參與하는 그 弘報方法은 어떠한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所在의 文化財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市民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市 우리 行政에서만 지금 높은데만 다 報告되는 것인지 一般 庶民에게도 다 그것이 弘報化 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不法음반 비디오 지도단속도 이게 상당히 지금 서울시 全域에 걸쳐서 教育環境沮害의 한 要人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단속반이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떠한 方法으로 團束을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相復 委員; 質問 있습니다. 質問에 앞서 委員長에게 議事進行에 대한 發言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分科委員會에서 다른 業務報告를 받았습시다마는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常任委員會를 開催하는 마당에서 오늘 報告內容을 보게 되면 방금 李汪烈 委員님이 지적했듯이 '91년도 業務現況은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91年 7月 8日로 이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個月이 지난 오늘도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常任委員會에 와서 答辯하겠다는 태도인지 나는 저의가 疑心

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業務報告를 받으러 왔지 業務現況을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業務報告라는 것은 孫馥 委員이 얘기하듯이 豫算이 얼마나 策定되었고 人員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금 運營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엽적으로 '91年度 現況은 이렇습니다. 이런 重點事業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스토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덮어 놓고 '91年度 業務現況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可視的 효과밖에는 안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다루어야 할 問題입니까? 해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本會議를 休會시키고 차후에 常任委員會를 다시 열어서 日程을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本會議에 우리 전원의 이름으로서 行政調查權을 發動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常任委員會가 할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提議하면서 委員長님에게 사실 오늘 常任委員會 開催를 保留할 것을 建議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이제 金相復 委員님께서 業務報告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文化觀光 所管에 대한 業務報告와 아울러 質疑를 일단 保留를 하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좀더 세밀하게 報告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런 動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意見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喆鎬 委員; 李喆鎬입니다.

지금 우리 幹事님이 말씀하신 것은 常任委員會에서 아주 필연적으로 해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常任委員會가 처음 열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 資料要請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과정

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 이 분이 꼭 答辯을 요구한다 그런 때는 우리가 要請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또 이 資料가 내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 資料要請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資料要請 심사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質疑를 만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思慮됩니다. 그러니만큼 일단 流會를 시킨다든지 留保시키는 선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고 이대로 進行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資料를 충실히 필요로 할 때 要請을 정식으로 해서 그대로 進行해 나가는 것이 尙當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李喆鎬 委員께서는 그대로 進行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필요한 資料를 要求하고 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더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또 意思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意思가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金相復 委員; 贊反을 묻기 전에 제 議事進行發言을 취소하고 李喆鎬 委員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進行하세요.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계속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質問 있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말씀하세요.

○張精一 委員; 瑞草區의 張精一 委員입니다.

擔當局長님과 課長님께서 說明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94年 서울 定都 600周年 紀念行事를 위한 3個年 計劃으로 特別機構가 設置되어 있다고 報告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提出하신 資料에 의하면 今年에 직접 投資 4個部分에 40億 6,000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特別機構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3年間的 總豫算 計劃은 어느 정도인지 그 構想을 밝혀주시고 또 직접 사용계획은 아까 報

告 말씀에서 추후에 밝혀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 委員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보면 모든 紀念行事라는 것이 걸치레가 되고 요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이런 記念行事가 걸치레만 아니고 또 일부 階層만의 참여가 아닌 汎市民의 참여로서 과거 歷史의 優秀性이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의 희망찬 서울이라는 未來 指向的인 잔치가 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서울市民들 中에는 靑少年이라든가 또는 障礙人 疏外階層들도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多角的인 方案을 講究해 주시기를 거듭 促求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報告內容에서 보면 定都 600周年 紀念事業에 모든 것이 다 文化財를 復元을 하고 연결을 하는 國內的인 問題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이러한 정도 600周年을 紀念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중요한 文化財나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 과거의 어두운 歷史過程에서 不法的으로 또는 약탈되어 가지고 나간, 그런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文化財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번 600周年 紀念事業의 차원에서 그러한 품목의 名單을 公開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소유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반출 경위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모 재벌에서는 美術品이라든가 文化財 이런 것을 購人方案을 推進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 서울市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報告 말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밀반출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 되돌려 받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재벌을 통한 買入運動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캠페인이나 署名運動을 벌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稅關이 이런 船舶, 埠頭같은 데서 철저히 감시, 監督을 해 가지고 우리의 文化財가 해외에 반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강력한 施行措置가 있어야 된다고 判斷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이 이제 1千萬 人口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제가 懇談會때 잠깐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3,000萬원이라는 그 작년의 서울 演劇祭에 대한 支援費가 금년부터 없어진다고 報道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市長님이 바뀌어 가지고 行政적으로 좋다 말았다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또는 아니면 작년에 지불된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현재 局長님께서 한 번 答辯을 해주시고 아까 報告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區民會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改善을 해 가지고 演劇이나 이런 것을 公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만 市立오페라단도 있고 市立交響樂團도 있고 또 약한 8個의 市立 또는 藝術團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회에 市立演劇團도 하나를 構成을 해 가지고 區民會館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各區를 巡廻公演하게 해서 區民들에게 演劇觀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또 質疑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曹相彩 委員; 曹相彩 委員입니다.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해서 각 關係公務員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관

계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國際交流事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部處로 分散되어 있는 國際交流事業을 통합하여서 窓口를 一元化한다는 취지로 外務部가 韓國國際交流財團을 설립할 예정이고 나아가서 文化部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 國際文化交流財團을 立法豫告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財團이 發足하게 되었을 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韓國藝總傘下 10個團體에 지원키로 한 支援費 1億 5,000萬원을 不要不急豫算이라고 해서 분류하였던바 갑자기 全額을 削減함으로써 文化藝術團體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豫算編成에 반영한 藝術活動 支援費를 全額 削減한 것은 서울시가 豫算編成에 얼마나 卽興的이고 주먹구구 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不要不急하다고 판단한 根據를 밝혀 주시고 民間部門의 文化藝術活動을 支援하고 善導해야 할 서울시가 재검토하여 藝術活動費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今年度 區民會館 公演藝術活動 支援金으로 7,500萬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公演場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公演場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銅雀區와 冠岳區에 대한 活動支援金 책정 액수를 밝혀 주시고 두 개의 區民會館의 公演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를 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

십시오.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아까 좀 모자란 부분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大都市하고 교류에 있어 가지고 모스크바, 동경,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자카르타의 경우 프리엔트리나 시스트리 어그리먼트 오리지널 카피를 좀 부탁 드립니다. 資料要請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金相復 委員; 네. 제가 質疑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區民會館 運營에 관한 件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91年度 業務現況과 '90年度の 행사, '89年度の 행사 등등을 보게 되면 보기 나름대로 틀리지만 거의 대개가 可視的인 행사 方向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文化觀光局은 藝術의 집단체 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藝術은 下向式 조정과 上向式 조정이 교접이 되었을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藝術이 創造된다고 합니다. 文化觀光局的 존재의 가치성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物質文明이 팽배한 이 사회에 있어서 精神文明도 똑같이 比例하든지 또 아니면 상승하는 것이 그것이 文化觀光局이 해야 할 일이지 物質文明이 앞서고 精神文明이 나중에 퇴조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회 어느 裏面이든가 가치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藝術的인 文化觀光局이 設立된 目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可視的인 行事が 많이 나열됐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小市民이 運營할 수 있는 소위 區民會館 運營에 관한 問題를 소상히 살펴보게 되면 區民會館은 서울市の 豫算으로 지어놓고 그 權利는 서

올市가 갖고 있고 運營權은 區 單位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의미에서 區로 移管을 시켜가지고 統制權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區民會館이 그야말로 區 自體內에서 藝術의 團體가 되고 文化의 團體가 되고 區民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方案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移讓의 時期와 移讓의 方法에 대해서 論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역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區民會館이란 小講堂과 大講堂이 있는데 小講堂과 大講堂은 거의 큰 행사로 사용하고 小講堂은 거의 대개 없는 사람들이 禮式場까지 하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개가 2층 事務室은 지역에 있어서 自生團體場 내지는 그 소위 協力 團體들의 事務室化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원래 목적과 위배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맞아요」 하는 委員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라도 서울市가 統制權을 갖고 있다면 區單位로 移管시키고 文化藝術 暢達을 위해서 區民會館은 區民 전부가 사용해야지 특정인이 사용한다든가 또 自生團體의 事務室化 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明若觀火하게 計劃을 세우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럴 것을 提議하면서 거기에 대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얘기한 좋은 案件인데 大學路는 사실상

1986年度에 저도 거기에 가서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멋있는 그러한 文化의 廣場이었습니다. 大學生 뿐만 아니라 靑少年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보완하면 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 文化觀光局에서 보다 폭넓게 각 區에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靑少年들이 행사할 수 있는 靑少年空間으로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 장소가 없다면 集團化 될 수 있는 정거장 근처라든가 아니면 道路를 一定期間 占用을 해 가지고 靑少年들이 하다못해 거기서 통기타도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體感溫度로 올 수 있는 그러한 藝術과 文化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建議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李汪烈 委員님이 얘기했습니다. 8페이지에 市民文化祝祭를 地域別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 觀光局 사람이 잘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 즉 다시 말해서 放送局에서 하고 있는 主婦歌謠熱唱이라든가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區民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希求性이라든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主導權을 行事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달동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隔離現狀 및 不和合 내지는 相互間에 交流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祝祭입니다. 그런데 業務報告를 보게 되면 되지도 않는 그런 역지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地域의 特性을 살린다 하는 그러한 촌스러움을 脫皮해서 週期的으로 또 非週期的으로 隨時的으로 거기에서 祝祭

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場을 文化觀光局에서 特別豫算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클라식만 할 것이 아니라 一般大衆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가수들도 돈 좀 쥐가지고 저녁에 캠프 파이어하듯이 불을 놓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和음을 誘導하는 그러한 誘致方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촌스럽게라도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代案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제가 얘기할 것은 教育的인 차원에서 讀書를 講座한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自費를 들여서 讀書大學을 經營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새마을基本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文化觀光局에서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讀書大學이라든가 主婦大學 같은 것은 區民會館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補調 내지는 補助를 안 해 주더라도 지도만 잘 해 주게 되면 主婦들이 餘暇善用을 할 수 있고 유한한 主婦들이 와 가지고 精神을 敎養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文化입니까? 다른 새로운 것도 발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론 삼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可視的인 行事는 물론 必然的으로 해야 하지만 皮膚感覺으로 느낄 수 있는, 小市民이 同參할 수 있는 文化藝術暢達에 좀더 立案을 해 주고 발굴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어떤 플랜을 짜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質疑에 對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다른 委員님 質疑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劉起鍾 委員; 江西 第4選舉區에 劉起鍾 委員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文化財나 史蹟地 등을 保存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서울市民生活의 便益施設을 優先하는 것을 더 우선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外國에

다니면서 例를 보면 獨逸의 라인강변이라든가 佛蘭西의 세느강변, 덴마크같은 데 주로 서구라파의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 遺跡地나 文化財, 城廓같은 것을 아주 保存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觀光客을 誘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그 나라의 歷史를 알리는데도 굉장히 寄與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實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좀 質疑를 드립니다. 제가 例를 들면 江西區의 가양동에 鄉校와 궁산이 所在하고 있는데 그곳 鄉校는 서울市 文化財 8號로 지금 指定이 돼 있고 또한 궁산은 史蹟地로 저금 假指定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現場을 가 보실 것 같으면 아마 그 궁산 配水地建設工事 現場事務室이 서 있고 지금 현재 우리 文化局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현재는 中斷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실한 工事が 再開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류되고 다른 데로 移轉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新聞紙上에 8月 5日字 7月 15日字 이렇게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10萬톤 規模로 배수지를 設置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를 5萬톤 規模로 좀 낮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지금 오늘 제가 알아 보니까 2萬톤이나 1萬톤 규모로 줄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었고 그런데 이 文化財와 史蹟地를 保護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은 가양동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地域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文化觀光局에서는 우리 文化財를 保護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大답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88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나라가 山水가 좋기 때문에 外國에서 觀光客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는 外國인들이 실지 우리가 外國을 訪問할 때를 보면 호텔에 가서 地圖하나 가지면 혼자서 어느 곳을 다 訪問해도 될 정도로 아주 그 觀光地圖가 잘 돼 있고 그 나라의 文化遺跡地에 대해서 觀光地圖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18페이지에 보면은 觀光弘報物 製作配布에 보면 觀光地圖가 300部 文化地圖가 200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觀光客 數라든가 또 호텔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地圖는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배포가 돼서 外國人한테는 물론이지만 우리 內國人들도 地圖가 상세하게 잘 그려져 가지고 地下鐵이 어디 있고 버스는 어떻게 大衆交通은 어떻게 타고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고 또 우리나라의 文化地圖도 제대로 좀 잘 설치가 돼서 外國 觀光客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觀光客들에게 정말 地圖만 가지고 서울을 觀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地圖體系가 제대로 좀 돼 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弘報物製作을 더 많이 늘리고 또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計劃을 樹立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協會에서 觀光協會하고 主管해 가지고 서비스 教育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서비스맨들이 矜持를 가지고 外國人이나 아니면 內國人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教育을 좀 實施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案内所도 지금 運營이 運營要員이 16名이 되어

있는데 觀光協會에서 4名, 觀光專門職이 12名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방대한 서울을 볼 것 같으면 案内所라든가 案内要員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88올림픽을 통해서 서울을 많이 알렸다고 하지만 實質的으로 서울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한 서비스와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案内所를 좀 增設하고 또한 案内運營要員을 많이 좀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을 잘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觀光局에서는 어떠한 腹案을 가지고 있는지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또 안 계시면 시간상 우선 世宗文化會館長으로부터 간략한 業務報告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答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李載震 委員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문화방송 有線放送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有線放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不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規制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有線放送을 許可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原則的으로 이제 새로운 무슨 어떠한 範圍 안에서 許可를 해 줘야 할 상황인데 과거에 不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認定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優先權을 주어 가지고 許可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싶구요 또 다음은 有線放送은 한번 그 許可를 得한 자에게만 權限이 있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放送許可를 得할 수 있는 그러한 許可法制度가 있는가 그 有

線放送 許可制度에 대해서 좀 확실한 答辯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럼 또 안계십니까?

그런데 시간상으로 봐서 도저히 지금 世宗文化會館長 報告를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주 오늘 오후 2時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47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停會時間이 다 되었으므로 계속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現況報告(世宗文化會館)

○委員長 權會榮;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시간상 世宗文化會館長님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權彛肯; 世宗文化會館長 權彛肯입니다.

여러분에게 業務報告하기 전에 世宗文化會館의 幹部를 먼저 紹介올리겠습니다.

事務局長 宋容皙입니다.

(宋容皙 事務局長 人事)

다음은 庶務課長 尹吉燦입니다.

(尹吉燦 庶務課長 人事)

施設管理課長 金雲鳳입니다.

(金雲鳳 施設管理課長 人事)

舞臺公演擔當官 張基豐 課長입니다.

(張基豊 舞臺公演擔當官 人事)

○世宗文化會館長 權彝肯;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世宗文化會館에 대한 業務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油印物을 參考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報告드릴 순서는 一般現況, '91業務計劃과 '91主要業務 推進內容 순으로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

(報告)

世宗文化會館 現況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가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公演種類가 定期, 特別, 企劃, 海外 그 외에는 알겠는데 이것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여기 說明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海外에 우리가 公演을 하러 갈 때에 이것이 "익스 체인지 프로그램"으로 가서서 각자 招請하는 케이스로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든 經費를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招請받아 가는 國家에서 自負擔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公演收入은 어떠한 종류의 公演收入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貸館收入도 貸館에 관한 規定이 좀 있는지 아무나 申請을 하면 貸館을 해 주는지, 貸館規定에 관한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質疑가 또 계시면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劉起鍾 委員; 제가 質疑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孫馥 委員님과도 조금 重複되는것도 있는데 저는 劉起鍾 委員입니다.

貸館收入明細書에 보면 그냥 貸館收入하고 5億 8,300萬 원으로 나와 있는데 大講堂, 小講堂, 展示場, 會議場, 小會議場, 宴會場의 구분으로 좀 收入明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貸館을 하는데 아까 貸館規定이 있느냐고 물어 본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 아마 클래식을 주로 하는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은 貸館이 되는데 大衆音樂을 演奏하고 하는 것은 貸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大衆歌謠 歌手로는 아마 몇 년 전에 이미자 가수하고 패티 김하고가 유일하게 世宗文化會館을 貸館해서 자기 리사이틀을 가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庶民들이나 大衆을 위해서 이러한 大衆歌手들을 위해서라도 貸館을 할 計劃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너무 클래식系統은 우리 大衆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價格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地方化時代를 맞이해서 貸館收入도 올릴 겸 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曹相彩 委員; 曹相彩 委員입니다. 서울시는 文化의 都市요 또 世宗文化會館하면 文化의 殿堂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世宗文化會館은 國際的으로도 손색이 없는 公演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大講堂은 있는데 또 아울러서 小講堂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 講堂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講堂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館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質疑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權彝肯; 제일 먼저 質疑해주신 李汪烈 委員의 公演種類와 海外公演 經費負擔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定期公演이라 하면 定期的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定期的인 이외에 公演을 더 計劃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特別公演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市民慰安公演은 市民들이 각 區廳에 要請을 할 적에 저희가 협조해서 도와 드리는 公演을 市民慰安公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會館에서 公演을 하되 직접하지 아니하고 貸館을 해 주는 경우 이것은 전부 貸館公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海外公演을 할 적에 經費負擔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기했습니다.

○孫馥 委員; 아니 그게 아닙니다.

特別公演 企劃公演 그것을 설명 안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슷한데.....

○世宗文化會館長 權壽肯;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定期公演은 각 藝術團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古典的 프로그램을 定期的으로 公演을 하는 겁니다.

特別公演은 所屬團員의 技倆向上을 목표로 해서 小規模 作品으로 구성된 公演物입니다.

企劃公演은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명분과 稅入增大를 目標로 市立專屬 藝術團體가, 혹은 外部團體와 藝術人등을 出演을 시켜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市民慰安公演은 公演活性化 계획의 일환으로서 市民속에 파고드는 공연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區廳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協助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海外公演은 그 經費負擔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航空料와 滞在費를 전액 초청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世界的으로 대체적인 예는 航空料는 所屬된 團體에서 부담을 하고 招請한 측에서는 滞在費를 負擔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航空料와 滞在費를 모조리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世宗文化會館의 8個 團體가 海外에 가는 경우에는 가급적 外國에서 滞在費는 전부 부담을 하고 우리는 航空料만 가지고 가는 方向으로 하고 外國團體도 招請할 때에는

그러한 方向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孫馥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公演收入을 자세하게, 또 貸館收入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선 제가 분류해서 가져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書類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貸館規定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貸館해 줄 때 不條理가 많다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大講堂의 경우에는 연말에 新聞公告를 냅니다. 그래서 1년 간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審議委員은 關係專門家를 招請해 가지고 審査를 해서 1년 치 貸館을 大講堂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小講堂의 경우에는 1년치를 하지 아니하고 6個月치씩 1년에 두 번 新聞公告를 대서 貸館申請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專門家로 하여금 審査를 해서 承認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展示場이 있습니다.

이 展示場도 1년에 두 번 6個月씩 분할을 해서 新聞公告를 내서 申請을 받아 가지고 專門家에게 委囑을 해서 貸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大會議場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貸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質問해 주신 劉起鍾 委員님 貸館收入, 收入明細書 이것은 말씀 올린대로 나중에 상세하게 書類로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클래식은 되는데 大衆音樂을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가 研究를 해서 公演收入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팝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최진희 씨 하고 해바라기 리사이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주하게 되면 일반 그런 분야에 흥행을 하시는 분들이 시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一般劇場들이 큰 데서 하면 다 쓰러진다. 또 藝術性이 大衆音樂은 좀 알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劉起鍾 委員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은 參考로 해서 研究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曹相彩 委員님이 質疑해 주신 世宗文化會館 大講堂은 아까 여러분에게 報告드린 바와 같이 3,895席, 小講堂은 522席 자리가 있는데 그 중간이 되는 中講堂이 없지 않느냐, 없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대책은 뭐냐 이런 質問이셨습니다. 사실은 中講堂이 世宗文化會館 傘下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事由는 우리 委員님들이 잘 알고계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中講堂은 현재 市議員님들이 쓰고 계신 이 世宗文化會館別館이 世宗文化會館의 中講堂이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대책은 어떠냐, 저희 世宗文化會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藝術의 殿堂으로서는 가장 適正規模가 外國에도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니까 저희 大講堂은 너무 크고 中講堂 2千席 規模 정도가 가장 적당한 藝術의 殿堂이다 이렇게들 專門家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앞으로 좀 도와주셔서 가지고 世宗文化會館에 中講堂 한 2千席 자리를 하나 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너무 간략하게 答辯을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相復 委員; 補充質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業務報告를 금방 듣고 나서 그동안의 業務把握도 못한 상태에서 質疑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公演計劃은 年間計劃이 되어 있는지 또 國內하고 國外로 海外公演은 물론 國威宣揚면에서도 좋지만 여기서 自費를 들 여 가지고 가는 경우와 또 그 쪽에서 滞在費 부담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海外公演은 어떻게 이루어 지며 또 契約은 어떻게 締結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世宗文化會館長 權彝肯; 年間計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豫算을 제출 할 때 審議를 해 보시면 그때 자세히 나오 게 됩니다. 海外公演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海外 公演인 경우에는 사전에 外國과 상당히 오래 전에, 적어도 1年 이전에 얘기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確定段階에 갔을 때 豫算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確定段階에 간 것은 내년도 豫算에 올라가게 되고 아직 未確定 상태에 있는 것은 豫算에 못 올리게 되고 未確定 狀態로써 혹시 앞으로 있을 豫定이다 하는 사항은 海外公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外國과 姉妹都市가 結연되어 있는 都市가 8個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報告에도 자카르타자매도시 公演報告를 올렸습 니다마는 와 달라하고 오면 저희가 가게 됩니다. 지금 實質的 具體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件이 있습니다. 그런데 確定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내년도 공연 어떤 것은 됐습니다하는 사항은 報告를 못 드리는 것을 諒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秘密은 아닙니다. 確定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다 뭐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孫允準 委員; 施設課長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開館이 13年이 지난 오늘 일부 施設이 公演裝備하고

老朽化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新開發을 하기로 하고 公演裝備가 補強될 것을 要望했는데 앞으로 管理 上의 運營方向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施設管理課長 金雲鳳; 施設課長 金雲鳳입니다.

지금 施設이라 하면 저희가 建物이 있고 또 내부에 音響裝備 또 照明裝備 또 電氣施設 또 冷暖房施設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孫委員님 말씀하시는 施設은 무슨 施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孫允準 委員; 지금 公演裝備가 老朽가 됐다고 하는데 그 老朽된 것은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들어가는 費用과 앞으로 要望事項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노후되어 있으면 바꾸어야 할 것 아니에요.

○施設管理課長 金雲鳳; 제 所管이 아니고 公演課所管이기 때문에 公演課長이 答辯을 하셔야 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앞으로 運營問題 細部細則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 보다 하나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要望한다는 것을 說明을 해서 添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施設管理課長 金雲鳳; 네.

○委員長 權會榮; 孫委員님 얘기는 우리 常任委員會 할 때에는 一門一答도 할 수 있고 두 번 質疑도 할 수 있고 規定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補充을 하는데 우리가 실지로 常任委員會하는 본뜻은 우리 所管部處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運營되는가 하는 것에 포카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孫委員님 얘기는 目錄에 施設이 老朽되어 가지고 改廢해야 된다면 그 目錄이 어느 정도 있으

며 그 財源은 어떻게 調達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얘기했으니까 孫委員 얘기가 書面報告를 원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書面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오늘 이상으로 世宗文化會館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에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文化觀光局 答辯에 앞서 저희 幹事 두 사람이 모여서 원활한 오늘 常任委員會 運營을 위해서 運營에 대한 動議案을 委員長님에게 口頭로서 제출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사실상 오전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과 또 答辯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委員 여러분께서 同意하신다면 이것은 書面으로 받기로 하고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常任委員會 運營이라고 생각하는데 委員님이 동의하신다면 되풀이됩니다마는 오전에 質疑한 것은 書面으로 전부 받기로 하고 지금 현재 밀린 案件 가운데 議事日程 第2項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動議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金相復 委員께서 오전에 質疑가 너무 많은 관계로 答辯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案件이 지금 또 2項이 남아 있고 이런 시간관계로 해서 書面으로 答辯을 받는 것을 動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汪烈 委員; 異議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다 具體的으로 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그것으로 하여금 또 質問이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또 열린다면 그것도 시간낭비인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잘 좀 書面答辯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動議에 再請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럼 좀 확실하고 명확하게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書面答辯을 언제까지 받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會榮; 書面答辯을 받는 그 날짜야 우리가 10月 會議가 있으니까 그 會議 전에 早速한 時日內에 書面으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文化觀光局의 質疑를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委員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金委員께서 아주 아프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業務計劃書가 誠實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局長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委員님들이 저희 文化觀光局에 豫算部分의 꼭 아셔야 할 일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書面答辯에 같이 委員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提出을 해 드리겠습니다.

2. 雲峴宮土地買入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0分)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雲峴宮土地買入同意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서울市長님을 대리해서 文化觀光局長님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 金明柱; 자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상세한 說明을 하기 위해서 委員님들이 양해를 주시면 擔當課長이 提案說明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렇게 하세요 뭐 어차피 준비가 덜 되었는데.....

○文化財課長 金明柱; 文化財課長이 雲峴宮土地買入同意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事由는 朝鮮朝 北村마을의 中心에 위치한 雲峴宮은 大院君의 私邸이며 高宗이 12歲까지 성장한 유서 깊은 곳으로 朝鮮朝 後期の 建築樣式과 特徵이 잘 保存된 史蹟 第257號로 지정된 文化財로써 현재 學校法人 德成學園과 大院君의 後孫이 所有管理하고 있으나 일단 市民에게 開放되지 않아 活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서 깊은 雲峴宮의 開放과 活用을 요구하는 民願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傳統文化地帶 復元整備計劃 綜合檢討時 雲峴宮을 서울市中에서 買入하여 復元整備한 후 傳統文化空間을 造成하여 서울市民의 歷史教育場으로 活用함과 동시 景福宮, 秘苑, 宗廟, 韓屋 保存地區등 주변에 分布된 文化財와 相互連結하여 文化벨트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는 檢討意見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年 4月 27日 前 高健市長님께서 主宰하는 서울市 政策會議에서 雲峴宮整備計劃을 서울 定都 600周年 紀念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雲峴宮 全體 約 6,300餘坪입니

다. 買入에 따른 市 財政負擔을 감안해서 우선 大院君의 後孫인 李 請 所有部分 2,148坪을 買入整備키로 하고 지금까지 買入問題를 檢討하여 왔습니다.

同 事業은 급속한 都市 現代化에 따라 멸실되어 가는 文化財를 효율적으로 保存 管理함과 동시에 도심의 부족한 文化空間을 확보하여 서울市民의 歷史意識을 일깨우고 傳統文化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核心事業으로써 雲峴宮의 一部를 매입코저 地方自治法 第35條第1項第6號에 의거 市議會의 議決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主要事業內容을 간략히 報告를 드리면 鍾路區 雲峴宮 114-10 일대에 現在 6,367坪의 土地가 雲峴宮으로 되어 있습니다.

建物이 約 14棟 3,000餘坪이 있는데 그 중에서 李 請 所有分이 土地 2,148坪, 建物 6棟 608坪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事業은 李 請 所有土地를 買入해서 建物補修 및 整備한 후에 朝鮮朝의 生活하고 大院君의 遺品展示 및 傳統婚禮式場등 歷史文化敎育場으로 活用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事業期間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즉 금년도까지 土地를 買入한 다음에 '92年 '93年度에 事業을 해서 '94年度 定都 600년에 맞추어서 一般人에게 公開 開館토록 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土地買入計劃은 李 請씨 所有分 2,148坪이며 그중에서 建物하고 大院君의 遺品 一部는 無償贈與 받도록 協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買入價格은 鑑定院價 금액 범위에서 協議, 買收토록 할 計劃이고 推定所要額은 約 110億원입니다. 그런데 豫算確保

狀況을 살펴보면 '90年度 豫算에 60億원이 計上됐습니다.

또 '91年度 今年度 豫算에 29億 8,000萬원이 計上이 되어서 約 89億원으로 計上을 했는데 그 이유는 坪當 約 400萬 원에 우리가 사고자하는 당초 計劃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된 豫算 50億원은 '92年度豫算에 우리가 反映할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 부분 천천히 해 주세요.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은 油印物에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까?

○文化財課長 金根培; 買入價格에서 推定所要額이 110億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確保하고 있는 豫算이 60億원이고 來年度 '92年度에 確保를 해야 될 豫算이 50億원입니다.

○金相復 委員; 아니 29億 얘기가 나왔는데

○文化財課長 金根培;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는데 今年度に '91年度 豫算에 29億 3,00萬원인가를 우리가 確保를 했는데 그 다음에 60億원하고 29億원하고 합쳐서 89億원을 確保를 했는데 不要不急한 豫算으로서 일단 留保를 시켰습니다. 29億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賣渡者立場에서 讓渡所得稅 問題때문에 協議가 안되니 今年度に 일단 契約金만 주고 本金額은 來年度에 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確保된 60億원만 今年度に 집행을 하고 不足分은 어차피 來년에 執行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市議會에서 議決을 해주시면 契約을 체결해서 우리 소기의 사업을 추진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먼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雲峴宮土地買入同意件 檢討한 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雲峴宮은 大院君의 私邸이며 史蹟 257號로 지정된 文化財로서 學校法人 德成學院과 大院君後孫이 所有管理하고 一般人에게 開放이 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保存되어 왔습니다.

1990年 4月 27日 서울特別市 政策會議에서 雲峴宮 整備計劃을 서울 定都 600周年 紀念事業 일환으로 雲峴宮 全體 約 6,300坪 中 大院君 後孫 李 請所有分 2,148坪을 우선 買入하여 市民의 綜合的인 歷史文化空間으로 活用하려는 취지나 그 목적이 대단히 肯定的으로 수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取得價格이 適正한가 또 이 個人所有 文化財를 다른 文化財보다도 優先해서 買收해야 될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緊急性 및 衡干性만 檢討되면 될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會議規則 第54條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이제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疑問點이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金相復 委員입니다.

雲峴宮 買入의 件에 대해서는 저희 臨時會의 本會議場에서 제가 정식으로 質問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案件이 附議案件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우리 常任委員會에 도달되었습니다. 冒頭에 말씀드릴 것은 雲峴宮을 買入하여 都市空間으로 活用하고 또 모든 市民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공감대와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 分野를 管掌하고 있는 우리 委員會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추기면서 이를 더 잘하게끔 해 줘야죠.

단, 한 가지 하고많은 文化財 가운데 왜 이렇게 雲峴宮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本會議場에서 本人은 325個件에 대해서 나열시키면서 그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計劃은 設立하지 않고 雲峴宮만 굳이 買入해야 될 긴급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答辯이 없습니다.

本會議場에서는 또 買入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都市計劃에 결정된 도로 용지나 구태여 수용하지 않더라도 都市計劃에 설정이 되는 都市用地나 公園綠地 같은 것은 一般價格보다 5分の1 내지 10分の1 價格으로 買入했던 前例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雲峴宮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가 이것이 두번째 우리 모든 委員들의 疑問點입니다.

거기서 接木시켜서 얘기할 리스트는 뭐냐 하면 저희 委員들은 한결같이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文化教育委員會 委員으로서의 位相,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市民의 代辯者로서 血稅를 갖고 正當하게 쓰일 것인가 아닌가를 監視 監督해야 할 義務를 지닌 자가 이것을 흥정식으로 通過시키는 것은 主人의 代表者에 있어서 職務가 遺棄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서울시 그 많은 豫算 가운데 110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委員會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委員會만큼은

단돈 1億이라도 아껴서 規模있게, 正當하게, 大義名分이 서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희 委員會의 바램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對答이 없었다 이겁니다. 前例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本 委員이 얘기할 때 이렇게 提議를 했습니다.

그러면 緊急性도 있고 急迫性도 있다. 그렇다면 土地買入의 價格에 問題點이 있지 않느냐, 都市 施設처럼 못 하더라도 적어도 土地臺帳上 보게 되면 현재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게 討論했습니다만 '83年度의 等級이 '91년에 227等級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m²로 고쳤기 때문에 됐다 하지만 여기에 等級表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82年度에는 수정해 가지고 74等級, '84年度 193等級, '85年度 195等級, '89年度 197等級, '90年度 215等級, '91年度 223等級 이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局長님이 안경을 쓰시고 현명한 판단을 갖고 長期眼目を 가져 가지고 이 雲峴宮 問題는 우리가 분명히 文化遺産으로써 사야 된다 당장 돈은 없지만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그런 基本方向이 있었다면 等級을 이렇게 올려놔 놓고 지금 現在 이것을 基準으로 하고 市價 坪當해 가지고 適正價格에 의해서 買入하는 것은 行政에 眼目이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이 있을 겁니다.

土地等級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일반 登記簿에 올라가니까 같이 登記簿에 올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公園用地나 기타 個人私有財産도 不要不級하고 분명히 올려서 안 될 그런 土地들은 等級을 안 올렸습니다. 그

런데 지금 現在 雲峴宮의 土地臺帳말고 여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都市計劃 확인원을 보세요, 이게 지금 땅은 땅입니다. 좋은 墓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쳐놓고 지금 거기에 個人이 누가 빌딩은 짓지 않고 그대로 사장된다면 단돈 100萬원이라도 土地의 價値性이 없다는 얘기에요. 土地價値性은 그 地域의 地價變動에 의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 地價變動말고 묶인 땅은 價値性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駐車場 整備施設이라고 해 가지고 美觀地域 딱 해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雲峴宮을 그것을 누구 개인이 만약에 사 가지고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서울市에서 承認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514萬원은 너무 많다는 거다 그러기에 왜 土地等級을 사전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分野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주변의 땅값이 3,000萬원이 간다 해서 거기에서 1/6밖에 안 되는 雲峴宮이 500萬원 싸다! 사자! 이것은 論理上은 맞을지 모르지만 實質的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제가 添言해 드렸습니다.

너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급하고 그것이 정당하고 분명히 사야되고 豫算이 돼 있다 하면 이런 論理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雲峴宮 買入件은 1989年 이미 策定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年度 豫算에 60億원이 策定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件에 대해서 本 委員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기에 資料를 要請했지만 本會議 質問 들어가기 전에 이 資料는 도

착하지도 않았다고요. '91年度는 83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資料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20億원은 벌써 이미 他用途로 썼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리고 所有主는 李 請씨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大院君의 私邸인 동시에 그전의 것을 한번 따져 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土地等級內譯 還收條件은 1968年度 적어도 이 정도 땅 같으면 國家에 還收시켰습니다. 그전에 舊土地臺帳 舊登記簿謄本을 보게 되면 李朝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國民의 財産이고 옛날에는 所有의 概念이 없기 때문에 王室이 이거 우리 땅이다 여기 집 짓게 되면 土地의 分類없이 그냥 됐던 것이 그대로 내려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遺産으로 된다는가 아니면 직계에 증여된 것이다 이거요.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것은 엄연히 百姓의 땅인데 왜 이렇게 주고사야 되는가 하고 그 後孫도 역시 李 請씨입니다. 李 請씨는 지금 外國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 燦爛한 文化를 갖고 있는 그 子孫이 만약에 110億원이나 200億원을 주고 산다 합시다. 돈은 어디로 갈 겁니까. 本人에게 줘야죠. 본인이 外國에 있습니다. 外國에 갖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非難의 對象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한 번 税金으로 計算해 봅시다. 지금 李 請씨가 실질적으로 판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利得이 얼마나 이거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90億원으로 지금 現在 土地地價 곱하기 몇%로 해 가지고 一般 垡地供給比率을 따져가지고 約 190億원 갑니다. 그 땅이, 190億원 가는데 그러면 李 請씨는 讓渡所得稅를 79億원을 내야 됩니다. 대충 잡아서 그렇죠. 79億원을 냅니다.

그러면 190億원에 팔아서 79億원 받으나 119億원 받으나

비슷비슷한 논리라고요. 반대로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李 請씨가 110億원을 받더라도 讓渡所得稅는 30億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갈 돈은 80億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럴 바에는 文化遺産을 保有한 特別措置法이라든가, 그 다음에 後孫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분의 母親 여기 살고 계십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그 후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서울特別市에서 그것을 영원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이것은 떳떳하게 우리 祖上의 것이기 때문에 기증받을 수 있는 유도의 기회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回避하지 않았느냐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그 점을 指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늘 얘기하지만 110億원을 통과하기 이전에 이것은 大義名分이 서지 않는다. 다른 文化財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은 사야 되느냐 물론 定都 600년도 좋고 700년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야 나머지 文化財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겠느냐 하는 뜻으로써 제가 지금 質問합니다.

質問의 숫자상 잘못이 있고 또 數値概念이 정확치 않더라도 본뜻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質問을 합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質問 받고 하셔도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죄송합니다. 제가 答辯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課長이 補充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本會議 때 金委員께서 質問하셨는데 제가 答辯過程에서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金委員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 이해가 잘 안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왜 구태여 많은 文化財 가운데 이것만 유독 급하게 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正道 600年 事業은 올림픽을 수행한 이후에 우리 서울이 20世紀를 맞이하는 새 출발 기점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하필 우리 文化事業뿐만 아니라 다른 事業도 우리 서울의 모습을 새로이 한번 그려보자 이런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祖上들의 文化財를 復元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아까 觀光業務에 대해서도 많은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觀光次元에서도 서울이 세계 큰 都市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에 들어오면 관광할 코스가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궁 觀覽을 하면 秘苑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구경시키고 돌아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傳統文化 地帶를 復元할 計劃을 마련했습니다. 서쪽부터 시작해서 우선 景福宮을 復元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한 決定을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日帝時代 때 사용하던 總督府 建物도 撤去해야 된다 놔두어야 된다. 이렇게 輿論이 있습니다. 이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政府次元에서 今年 10月달에 다시 한 번 국민의 輿論을 收斂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景福宮을 復元하고 昌德宮을 해서 昌慶苑을 昌慶宮으로 거의 復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宗廟를 거쳐서 雲岷宮을 연결하는 일련의 文化財를 연결시키는 한 觀光코스로 개발할 計劃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文化財보다도 優先的으로 雲峴宮 中の 일부는 지금 德成女大에서 管理하고 있으니 公開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個人이 個人財産이라고 해 가지고 문을 닫아 잠그고 公開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서울市에서 사 가지고 復元을 해야 되겠다 復元과 同時に 또 서울市民이 活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施設도 構想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傳統婚禮式 같은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여러 가지 構想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차 기회 있을 때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市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購入을 하자 이렇게 方針을 정했는데 豫算問題입니다.

委員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까 金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 李朝때 財産으로써 個人所有가 아닌데 조금 잘 했으면 우리가 안 사도 確保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王室財産은 文化財管理局이라는 組織이 있어서 거기서 다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管理局에서 서울市에 있는 5대 궁은 물론 文化財管理局에서 直接管理를 하고 補修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文化財는 서울市가 管理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國有든 個人所有든 그 중에 하나 雲峴宮은 王室이 아님에도 宮으로 되어 있고 大院君이 그 동안 오래 國家를 統治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봤다 해서 史蹟으로 指定이 되었습니다. 史蹟이 된 以後에 一部는 德成女大에서 買入을 하고, 子孫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 서울市에서 사야 할 이 財産입니다.

아까 金委員께서 土地 等級問題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委員님이 지적하셔서 대강 調査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83年 5月 1日날 等級이 82等級으로 결정이 되어서 等級價格이 坪當 70萬원입니다. 그럼 '84年 7月 1日 82等級에서 221等級으로 上向調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²당입니다. 坪當이 아니고 앞에 것은 坪當 價格이고 이것은 m²당입니다. 이것은 70萬원의 1/3같으면 20萬원 조금 넘는 金額입니다. 그래서 m²당 21萬 4,000원으로 價格이 되니까 이것을 坪當價格으로 換算을 하면 70萬 7,000원이 됩니다. 그럼 7,000원이 1年 조금 넘는, 1年 두 달이네요. 7,000원의 價格이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91年度 1月 1日 現在 234等級으로 上向되어 가지고 m²당 40萬 5,000원으로 土地價格이 變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金委員님이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金委員님도 다시 한번 檢討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金委員님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文化觀光局에서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 土地等級 決定은 저희 所管이 아니고 專門機關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저희들은 천상 基準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今年度에 政府에서 不動產 價格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끝에 土地를 管理하는 建設部主管으로 全國 일제히 土地 公示價格을 調査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區別로 現時勢에 맞게끔 價格도 現在 저희가 千萬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買入 안 해도 의당 國有配當이 되는데 어떻게 個人이 되느냐하는 問題는 여기서 말씀드

리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王室財産이 아니고 大院君 個人財産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李 請 씨가 5代孫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個人 私有財産으로 管理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法上으로 어찌하는 方法이 없다고 저희들은 判斷했기 때문에 買入을 構想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委員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文化財 復元事業 中에는 여러 가지 文化財 復元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先代에 紹介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또 이것이 한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어코 保存을 해야 되겠다 아까 사진첩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사실상 物件이야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먼지가 짝 쌓인 채로 寫眞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런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런 것이 정리가 돼서 市民들한테 公開되었을 때 우리 많은 市民들의 意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런 상태로 살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國家를 統治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生活狀態가 이렇다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市民들에게 빨리 좀 보여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答辯이 不足하시면 저희 課長이 補充하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孫允準 委員입니다.

지금 雲峴宮 土地買入으로 인하여 學界나 專門家들로 하여금 公聽會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公聽會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에 대해서 雲峴宮을 꼭 買入해야 한다는 贊成論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反對論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油印物도 하나 添加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油印物이 없으면 反對論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시고 또 꼭 買入을 해야 한다는 贊成論에만 局限하지 마시고 反對論의 立場에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그 問題는 課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曹相彩 委員입니다. 本 件에 대해서는 市 當局에서 提案說明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分間 停會를 했다가 本 件을 다시 熟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10分間 停會를 要請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10分間 停會要請이 들어왔습니다. 異意 없으시죠 ?

(「찬성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孫允準 委員; 10분간 停會를 하기 전에 제가 한 質問을 答辯받아 보고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答辯듣고 제가 그것은 讓步 할 수 없습니다. 曹委員 讓步를 해 주시죠.

○文化財課長 金根培; 文化財課長입니다. 이 問題에 대한 孫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雲峴宮에 대한 別途의 어떤 計劃을 세운 것이 아니고 傳統文化地帶 整備에 대한 전반적인 計劃을 저희가 '88年度에 이미 大學校에 研究用役을 주어 가지고 報告書가 '88年度 말에 쥐서 '90年度 초에, 2月달에 나왔습니다.

이 計劃의 일환에 보면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 宗廟, 雲峴宮 또 경운동일대를 文化地帶化 해 가지고 이 부분을 重點的

으로 觀光루트화 해야 되겠다 하는 研究報告書가 나와 가지고 이 報告書를, 서울시 文化財 30人입니다. 이 文化財委員들과 한 4,5차례 걸쳐서 討議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 일단 雲峴宮을 買入해서 一般에게 公開하는 事業이 좋겠다 하는 그런 文化財委員들의 意見이 있었고 지금 昌德宮 옆에 보시면 그 담장에 붙어서 쪽 집들이 있습니다. 昌德宮 담장 周邊을 整備해서 그것을 史蹟公園化 해야 되겠다는 이런 代表的인 事業計劃이 우리 文化財委員들로부터 薦擧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孫委員님께서 저희한테 물은 것은 一般人的 公聽會를 거쳤느냐 그러셨는데 이 問題는 一般人하고는 긴하게 論議를 안 했습니다.

○孫允準 委員; 學界나 專門家들로 하여금 公聽會를 거쳤느냐 이것입니다.

○文化財課長 金根培; 그것은 저희 文化財委員들 30분이 한 3,4회 걸친 討論過程을 거쳤습니다.

○孫允準 委員; 討論過程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贊成論도 있었고 反對論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贊成論만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問題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文化財課長 金根培; 그러니까 30人 大部分이 거의 전폭적으로 이 事業은 해야 된다는 그런 意見이죠.

○孫允準 委員; 反對論의 입장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까?

○文化財課長 金根培; 그리고 먼저 局長님께서 質疑했던 答辯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만 停會하는 동안에 討議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附椽

하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간단하게 하십시오.

○文化財課長 金根培;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地價의 價値性問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資料를 만들어 왔습시다마는 그 일대에 지금 標準地價를 조사해 보니까 '91年度에 大幅上向이 되어 가지고 1,200萬원에서 1,400萬원까지 告示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昨年度 11月달에 鑑定을 하면서 公認 鑑定機關의, 2個 機關의 評價意見書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이 文化財 區域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地價가 周邊時勢보다 低廉하게 評價가 됐다는 鑑定院의 評價意見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00萬원이 비싸냐, 싸냐하는 問題는 전적으로 鑑定評價機關의 意見에 따라야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思料가 되고 '91年度에 83億원의 豫算이 책정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91年度에는 '90年度에 60億원이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移越됐습니다. 그러니까 '91年度 60億원이 있고, '91年度에 다시 追加적으로 29億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89億원이 今年度 豫算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億원, 今年度 豫算은 今年度에 契約해 가지고 契約金 주면 되고 내년도 殘金을 주면 된다 해 가지고 29億원은 이미 不要不級 하지 않은 豫算이라고 해서 他用途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數値는 조금 틀리지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稅金問題를 말씀해 주셨는데 稅金은 當初에 저희 課에서 舉論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協議를 마친 이후에 契約을 하기 위해서 協議를 하니깐 그 쪽에서 稅金問題 讓渡所得稅 문제가 자기들한테 問題가 생겼다 해서

일단 問題가 提起되었습니다. 그 問題는 서울市로부터 받는 돈은 約 110億원인데 稅務署에 알아보니까 地價告示된 金額이 坪當932萬원이니까 932萬원에 해당되는 돈이 約 190億원입니다. 190億원에 상응한 讓渡所得稅를 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79億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가 잘못됐다 해서 그 쪽도 國稅廳 民願室에 가서 직접 相談을 했고 우리 課 職員도 國稅廳 民願室 相談室에서 直接 相談을 했습니다.

相談을 한 결과 그것은 政府가 산 金額을 認定해 준다 그러니까 政府가 산 金額이니까 110億원에 대한 金額을 認定해 줘서 그 部門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賦課한다 그것이 約 40億원입니다. 40億원 정도를 賦課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論理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약 70億원입니다. 70億원을 받아 가겠다는 논리인데 이런 稅金問題는 사실은 저희 文化財課에서 檢討한 事項이 아니고 契約을 하는 段階에서 자기들이 提起한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問題를 檢討를 해 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孫允準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德成學院은 買入을 얹고 또 기왕에 雲峴宮만 民願이 提起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民願이 야기되는 것까지 公聽會도 안 하고 했다 하면 그것은 약간 矛盾이 되지 않습니까?

○文化財課長 金根培; 그것은 委員님들이 조금 諒解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나 하면 德成學院 所有土地는 지금 누구나 자유로이 들어가서 觀覽이 가능합니다. 지금 누구든지 德成學園 所有部分에 들어가는 것은 制限을 금하지 않고 있

습니다. 그러나 雲峴宮의 核心的인 部分은 大院君이 執務를 보던 노인당이라는 韓屋建物하고, 高宗께서 出生하신 노락당 또 노이당 이렇게 해 가지고 큰 韓屋 3채가 있습니다. 이것이 雲峴宮의 核心部分이기 때문에 이 部分은 완전히 個人財産으로써 他人의 接近을 아주 排除시키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課長님,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孫委員님하고 曹委員님의 같은 얘기는 제가 冒頭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는 것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여기에 100名 아니라 30名 文化財管理委員을 모아놓고 이것 사 가지고 制度化시켜라 한다면 다 하는데 問題는 없는 집에 선풍기 사자하면 아들들 다 박수합니다. 냉장고 사자고 해도 박수합니다. 財源이 問題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돈이냐 市民의 血稅였다 어디에 쓰이느냐 필요한데 쓰인다 어디에 급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現在 德成女大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德成女大는 '64年度에 買入했죠?

○文化財課長 金根培; 네.

○金相復 委員; 얼마 주고 買入했습니까? 그때 서울市는 잠잠어요?

○文化財課長 金根培; 그건 서울市가 關與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金相復 委員; 李 淸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德成女大가 '64年度 買入했죠?

○文化財課長 金根培; 네.

○金相復 委員; 그때 서울市는 그것의 必要性을 못 느꼈다 그거죠?

또 한 가지 德成女大 所有의 땅은 지금 現在 마음대로 觀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것은 科學的인 根據가 못됩니다. 個人의 所有財産은 내일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出入禁止假處分 해 가지고 팻말 딱 쳐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때 서울시는 制裁措置를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여하튼 다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러한 것은 솔직 담백하게 우리 委員님들 더불어 삼시다. 어차피 豫算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移越시키지 말고 合理的으로 합시다. 우리 한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所有者는 없더라도 管理人에게 얘기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더 낫지 一般的으로 느끼듯이 10가지를 물으면 12가지 答辯書를 준비하게 되면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孫允準 委員; 民願이 야기되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 專門家들이나 學界에 有名한 분을 불러서 公聽會를 열어서 분명히 확실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執行府의 좀더 성실한 答辯을 研究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23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그럼 계속해서 續開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質疑하실 분 있으면 質疑해 주세요.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아까 金相復 幹事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격에 대한 論難이 아니고 不動產 文化財에 대한 購入自體를 反對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우리가 흔히 海外文化財를 購入을 해 가지고 國內로 搬入을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죠. 文化財라고 하는 것은 누가 所藏 保管하든간에 窮極的으로는 國家와 民族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個人이 가지고 保管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非公開하는 그 自體가 어떻게 보면 反社會的인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또 歷史的으로 볼 때 李朝王室 500年에서 日帝統治 36年이란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國家經營 次元에서 당시 王室의 後孫으로서 그것도 당시에 文化財가 얼마나 많이 海外에 流出되었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當時王室의 後孫으로서 당연하게 이것은 公開를 하고 維持補修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經濟的으로 봤을 때 維持補修가 어려워 우리市나 國家에 維持費를 支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그러한 買入이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요 또 數年 前부터 우리가 자꾸 市나 國家에서 買入 운운하니깐 더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600年 차원에서 外國人에게 꼭 보여 주어야 할 것이 과연 雲峴宮 하나뿐이냐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미흡하다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私財를 털어 海外에서 所藏品을 가지고 여기에서 잘 保管해 가지고 公開도 하고 寫眞攝影도 허용하고 하는데 이러한 王室의 後孫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아니면

일반 우리 國民들에게 또는 市民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國內文化財를 개인이 사고팔고 해 가지고 잘 保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文化財는 國家나 市나 모든 團體에서 그것을 또 확인 監督해야 될 그러한 責任이 있지 않느냐 하는 次元에서 本件 雲峴宮 買入件은 당연히 否決이 되어 가지고 좀더 그 사람들에게 法과 民族을 위해서 巨視的으로 다시 判斷할 수 있는 再機會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 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買入을 하는 것을 우선 反對하는 意思를 표시했습니다. 그 反對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異議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孫馥 委員; 금방 張精一 委員의 發言에 同意하면서 雲峴宮 土地買入動議案에 대하여는 本常任委員會에서 그 동안 資料調査 및 買入에 대한 妥當性 調査가 짧은 기간으로 미흡하므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충분한 檢討후 처리할 것을 同議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그러면 무조건 買入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고 小委員會를 구성해서 좀더 세밀한 檢討를 한 뒤에 決定을 하자 하는 이런 案이 계십니다.

또 다른 案이 계시면.....

○金相復 委員; 運營의 方法인데요 張精一 委員님과 孫馥 委員님과 合併하세요. 合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張精一 委員;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金相復 委員; 완전 반대입니까?

○張精一 委員; 買入自體를 반대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른 案이 제시면 말씀해주세요.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저는 本 件에 대해서 條件附 同意를 要請합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말하면 自由民主主義 思考方式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완전 自由競爭 또 모든 所有權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반대적인 次元에서 오늘날의 社會主義에서 鼓舞的인 概念 이런 財產權이 國有化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個人的 所有權을 認定하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거에 本人의 意思에 의해서 財產을 國家에 獻納한다든지 이것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現在 이것은 엄연한 아마 李 請氏 個人的 과거에 그 양반의 先祖가 어떤 國家的인 偉人이었던 현재는 個人的인 所有權에 속한 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것이 만약 잘못 副作用으로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思考方式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려하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도 說明을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받아 있는 豫算, 60億원, 앞으로 다음 會計年度豫算에 포함될 約 50億원, 이렇게 해서 이미 豫定된 돈들이 이번으로 否決된다면 이것이 無效化가 됩니다. 해서 다시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시점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 경우에 本人이 바라는 金額, 다음에 客觀的인, 合法的인 합동 鑑定事務所에서 本 金額, 또 우리가 원하는 金額,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金額은 無限定으로 규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間的인 가장 合法的인 合同鑑定事務所의 鑑定에 의한 價格보다도 더 다운된 金額으로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따놓은 豫算과 앞으로 있을 豫算 그것도 우리가 合法的으로 수용을 해 주면서, 또 이것이 窮極的으로 私有財産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終局的으로는 賣買에 의한 行爲에 의해서 手段으로 같음될 것입니다. 寄贈이라든가 獻納이라든가 이것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意思에 반해서는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同意를 저는 促求를 드리면서 이러한 條件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文化財라고 할 수 있는 모든 個人的인 事物까지도 모두 이것은 附隨的으로 寄贈을 받는다. 이것은 根本, 本 財産과 附屬 財産의 關係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寄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民主社會에도 認定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契約時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우리가 다시 再考를 하고 가능한 한 또 窮極的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本人의 의사에 배치됨이 없이 寄贈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했으면 再考를 다시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條件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本件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 주고 이런 條件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張精一 委員; 하나만 補充說明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말씀하십시오.

○張精一 委員; 本 委員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寄贈이나 所有權을 갖다가 無償으로 讓渡를 받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李汪烈 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資本主義사회 이기 때문에 소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寄贈이나 所有權 變更을 要請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財라는 그 자체는 窮極的으로 國家와 民族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所有權은 그 대로 놔 두어도 아무런 問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維持費라든가 補修費 같은 것을 차라리 支援을 해 주고 一般人들에게 適正한 시간에 公開토록 그렇게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買入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을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으로써는 孫馥 委員이 小委員會를 구성해서 좀더 具體的으로 내용을 알아본 뒤에 買入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改議가 있습니다.

또 재개의으로써 李汪烈 委員께서는 지금 어려운 豫算을 今年度에 60億원 한 번에도 못 하고 來年度에 또 50億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을 파는 사람이 안 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 못 사면 또 우리의 원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꼭 文化財로써는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買入은 해야 한다는 이러한 세 가지 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李汪烈 委員 재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재개의에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說明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補充說明은 될 수가 없죠. 表決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안 되죠.

재개의부터 表決 하겠습니다. 지금 再改議로서는 買入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해서 지금 재개의에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이 있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金相復 委員; 지금 우리 張精一 委員은 반대쪽에 同意를 하셨고, 우리 孫馥 委員은 同議쪽에 小委員會를 거쳐서 거기에 다시 審査를 하고 해 가지고 買入을 同意하는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재개의가 아니고 개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지금 孫馥 委員도 同意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買入하는 것을 反對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買入하자는 것도 아니고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좀더 세밀히 調査를 해 가지고 可否를 결정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의로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會議規則原則에 의해서 재개의부터 表決하겠습니다.

재개의 贊成하시는 분 起立해 주세요.

(起立表決)

재개의에 贊成하시는 분이 지금 네 분입니다. 모두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 재개의에 贊成했습니다. 또 孫馥 委員님이 提案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좀더 調査를 해 보고 나서 可否間 決定을 하자 이런 재개의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해 주세요.

(起立表決)

그러면 買入을 反對하시는 張精一 委員의 동의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지금 네 분이 찬성을 했고 또 두 분은..... 모두 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過半數는 어느 쪽도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過半數가 된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否決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過半數가 안 되어서.....

(場內騷亂)

지금 10名인데 말하자면 委員長이 거기에 決定權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표 던질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可否同數일 경우에 委員長이 決定權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써 可否同數가 안 되고 현재 過半數가 미달입니다. 그럼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決定權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 결정을 안 하고 過半數 미달이기 때문에 否決된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場內騷亂)

지금 현재로써는 過半數가 안 돼서 否決입니다마는 지금 棄權狀態가 많기 때문에 全體意思를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李汪烈 委員에 대해서 제일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全體議決을 묻겠습니다. 全體議決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起立을 시키겠습니다.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體議決에서 지금 현재로 過半數가 미달입니다마는 棄權이 많기 때문에 全體意思를 한 번 이번에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지금 재개의 하신 李汪烈 委員에 대해서 全體意思를 한번 묻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緊急動議 하겠습니다. 緊急動議 받아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權會榮; 말씀하십시오.

○金相復 委員; 議事進行 緊急動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分科委員會를 召集해서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이 있습니다.

一事不再理의 原則도 있고 過半數의 規定도 있습니다. 否決하는 사람도 자기의 權利이고 棄權도 자기의 權利입니다. 棄權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再誘導 하는 方法은 議事進行에 이런 方法이 없습니다. 贊成이 4名이고 棄權이 3名이고 否決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孫馥 委員님의 개의를 개의로 成立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本會議에는 審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附議案件에 대한 可否의 審議입니다. 可냐 否냐지 거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이지 거기에서 條件附나중에 한다는 그런 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님이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可냐 否냐 가운데에서 일단 一事不再理 形式이 既決된事項을 否 두 분 棄權 세 사람 그 다음에 本案審議 贊成에 대해서 4名 같으면 이것은 否決된 것으로 宣布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어떻게 議事を 進行합니까?

○委員長 權會榮; 孫馥 委員에 대해서 이것은 合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決議하는 過程에 있어서 그 決定의 方法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決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와 개의를 재개의 지금 成立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表決結果 否決이 宣布되었기 때문에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場內騷亂)

3.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15時 58分)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 名譽市民證授與 改正條例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서울特別市 名譽市民證授與改正條例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名譽市民證은 서울特別市에 功勞가 현저한 外國人이나 서울市를 訪問하는 外國손님들에 대하여 그 功勞를 致賀하거나 禮遇해 주는 方案의 하나로 大學에서 授與하는 名譽博士學位授與와 같이 象徴的인 禮遇手段의 하나입니다.

현재 서울市에서 名譽市民證을 授與한 現況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授與人員은 總 164名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분을 하면 市政 有功者라고 주는 것이 19名입니다. 또 外國貴賓에게 준 것이 8名, 國際大會에 參席했던 사람들에게 준 것이 135名, 기타가 2名, 이렇게 해서 164名에 대해서 서울市 名譽市民證을 授與한 바가 있습니다.

改正事由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에 의하면 第5條에 서울特別市議會가 成立될 때까지는 市議會 議決을 대행하기 위하여 名譽市民證授與審査委員會를 두어서 審査議決토록 되어 있어 기존에는 10人 이내의 審査委員會를 규정하여 審査議決후 授與했으나 서울特別市議會가 構成됨에 따라서 委員會의 存在가 不必要하게 되어 전면 改正이 不可避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授與한 名譽市民證의 95%가 서울特別市를 訪問하는 外國貴賓이나 國際大會에 參席한 外國人에게 儀禮적으로 授與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外國貴賓의 訪問은 통상 訪問하기 수 일전에 通報하고 訪問하는 경우가 많아 차후에 서울特別市를 訪問하는 外國貴賓에게 名譽市民證을 授與해야 할 경우 現行條例에 따라서 市議會 議決을 거친 뒤에는 時間制約이 많아서 名譽市民證이 本來 趣旨대로 連營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改正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改正骨子を 말씀드리면 授與對象은 友邦國家 國民으로서 서울特別市에 功勞가 현저한者, 또 한 가지는 서울市를 訪問하는 外國貴賓에게 儀禮적으로 주는 두 가지 형이 있겠습니다.

이 外國貴賓의 범위는 서울特別市 規則 第2367號에 外賓 迎接規則의 第2條, 第3條 外賓의 區分에 준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參考로 來外賓 迎接規則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第2條 來外賓의 定義에는 이 規則에 의해서 來外賓이라함은 서울特別市를 訪問하는 外國人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첫째, 國家元首 둘째, 行政首班 또는 國會議長 大法院長 셋째, 閣僚 넷째, 國會議員 다섯째, 駐韓 外交使節 여섯째, 地方自治團體의 長 일곱째, 國際平和維持 및 親善圖謀에 業績이 있는 人事 이렇게 7區分이 되겠습니다.

第3條 來外賓의 구분은 來外賓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項에 A級이라 해서 國家元首 또는 이에 준하는 人事, B級은 行政首班 및 國會議長, 大法院長 또는 이에 준하는 人事, C級에 閣僚 國會議員에 駐韓外交使節 公益自治團體의 長 또는 이에 준하는 人事 國際平和維持 및 親善

을 도모하는 등의 현저한 業績이 있는 人事, D級은 지금 말씀드린 이외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授與方法 및 惠澤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授與方法은 市議會의 同意를 얻어서 市長이 授與하고 儀禮的으로 서울特別市長이 授與하는 두 가지 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行政上 惠澤賦與는 市議會 同意를 얻어서 決定된 者에 대해서는 市長이 서울特別市民에게 準하여 行政上惠澤의 賦與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儀禮的으로 서울市長이 授與한 분에게는 이런 예우가 가능하질 않습니다. 다만 名譽市民證을 줄 때 메달과 副賞을 授與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이 다 똑같이 議會 同意를 얻어서 주는 분에게나 또는 市長이 주는 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授與 取消規定을 이번에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授與趣旨에 반해서 行爲를 하였을 경우에 市議會 同意를 얻어서 取消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條項을 하나 新設했습니다. 施行規則 制定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고 委員님들이 判斷을 해 주시는데 도움을 얻는 의미에서 몇 가지 敷衍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條例規定을 설명하는데 授與調書を 작성해서 市議會 議決을 거치도록 한 現行 規定과 市議會 同意를 얻도록 한 規定의 차이점입니다.

전번의 條項은 議決이라는 合議體 機關에서 그 機關의 意思를 결정하는 行爲를 얻도록 되어 있고 지금 改正하는데는 同意라는 用語를 썼습니다. 이것은 他人의 行爲에 대하여 그것을 承認하고 인정해 주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從前에 名譽市民證을 줄때에도 市議會議決을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표현상에 同意로 했습니다. 이 同意는 물론 議會에서 上程해 가지고 議決을 해야 되기 때문에 事實上은 議決事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行政上의 惠澤賦與 問題에 대해서 問題입니다. 同意를 얻는 우리 市政에 크게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事實上 議會에다 報告드리게 돼 있지만 그 사람이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外國人으로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고아원이나 障礙者 事業所에 獻身的으로 努力하는 분들은 이제 議會에다 報告도 드리고 議會委員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同意를 얻도록 했고, 儀禮的으로 서울市를 訪問하는 外國貴賓에게 주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그냥 주도록 이렇게 改正案을 上程했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提案說明에 대해서 專門委員의 意見을 발표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專門委員의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 名譽市民證授與 改正條例案을 檢討한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條例로써 承認되고 있는 것을 議會가 생김으로 인하여 議會와 關係를 規定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改正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방금 提案說明에서 敷衍해서 말했던 바와 같이 第2條를 檢討해 보니 名譽市民證授與가 現行條例는 市議會의 議決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改定案은 議會의 同意를 얻어 결정토록 改正하고자 하는데 議決을 同意를 할 것인지 檢討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第4條를 檢討 해 보니 權利賦與는 行政上 各種惠澤을 市長이 賦與하도록 되어 있으

나 惠澤範圍등은 議會의 同意를 얻을 必要性이 있지 않는가의 與否가 檢討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第6條를 檢討해보니 外國貴賓에 대한 名譽市民證 授與는 議會의 同意없이 授與토록 되어있는바 改正案에 의하면 名譽市民證 簡素化와 迅速性 이런 것을 追加했고 이것이 인정이 되나 慎重性이나 市民證 品格, 또는 權威問題가 다소 檢討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簡素化 및 迅速性, 信憑性品格 및 檢討가 調和問題가 되는 것인데 요즘 行政範圍의 어떤 부분은 執行府에 彈力을 주어 여건에 따라 항시 적용할 수 있도록 立法하는 例가 많음을 參考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意見입니다. 이상으로 會議規則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이상으로 執行府의 會議規則과 專門委員의 意見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質疑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法理解釋 가운데 起案者이신 우리 文化觀光局에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지금 현재 第2條 末末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條에 現行條例의 母體는 市議會고 그 다음에 決議權은 市議會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改正案의 母體는 서울特別市長이고 그 다음에 決議는 市議會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市議會와 서울市長의 차이가 論議되었는데 마지막으로 決議와 同意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議決이라는 것은 本會議 석상에서 議決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同意도 本會議 席上에서

同意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質疑
議決이나 하는 것은 贊反討論이 있을 수 있는 議決도 있지만
同意는 贊反討論 없이 可否를 決定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
니다.

法理解釋이 그렇지 않습니까. 議決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議決합니다. 提案說明 附議案件을 하는 것이고 同意는 이렇
게 同意합니다. 可냐 否냐 묻는 그런 점으로 改正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 同意 自體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 解釋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同意 自體를
지금 현재 上程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法律에 있어서
拘束的 要件에 해당이 안 된다 그 同意自體가 拘束要件에 해
당이 안 된다고 봐서 同意가 부결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現
行 條例 第2條와 똑같은 效力을 발휘합니까? 議決안 된 것
하고 同意가 통과 안된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同意가 안 되면 그분한테는 名譽市民
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市長이 判斷했을
때 儀禮的, 外賓한테 주는 것은 市長이 判斷해서 주는 것이고
다만 서울市政에 현저한 功勞가 있거나 우리 서울 市民에게
주는 惠澤이 그대로 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議會의 同
意를 얻어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相復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또 改正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第2條는 그
대로 修正하지 않고 第6條에 대해서 行政便宜만 提供했다라
면 오히려 이 條項의 앞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
각입니다.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主要骨子

의 1페이지 "授與對象者는 市長이 市議會의 同意를 얻어 決定함" 案이니까 우리가 서로 討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閉會 中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閉會때는 어떻게 처리할 豫定인지요. 그 다음에 나항의 行政上 各種 惠澤의 範圍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惠澤을 주는지 列舉를 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第6條 外國貴賓에 대한 名譽市民證授與에서 일단은 地方自治를 하게되는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市議會가 罔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外國貴賓의 경우에도 自由裁量, 羈束裁量은 아니더라도 自由裁量에 의해서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市議會에 事後報告를 하여 形式的이나마 同意를 받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냥 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外國貴賓 경우에도 동일한 全般的인 趣旨로 봐서 흐름을 따라서 市議會에 事後報告를 해서 여기 이 경우 同議 안 할 사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最少한 市議會의 存在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意見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別紙 改正의 主要骨子 여기에 뒷 페이지에 授與方法 및 惠澤賦與가 있습니다.

그 중에 行政上 惠澤賦與가 있어요. 거기에서 市議會의 同意를 얻어 결정된 者에 대해서 만 市長이 서울特別市民에 準하여 行政上 惠澤을 賦與 可能하다 하는 이것은 個個人的 外國人,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줄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貴賓으로 總理라든가, 大統領이 와서 그냥 自由裁量으로 줄 때 에는 不可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어차피 영원히 總理나 大統領을 해먹을 것이 아니고 다시 一個市民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아까 같이 事後에 報告를 해서 同意를 얻는다면 그 趣旨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 양반이 平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 서울特別市民에 準하는 어떤 行政上 惠澤을 賦與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不可能이 아니고 可能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質問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분 있으면 質疑하세요.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局長님께 既授與된 것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判斷을 합니다. 중요한 例가 國際軍陣醫學協會 35次 學術大會에 參席했던 全員에게 授與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賞이라는 것이나 또는 授與證書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그것이 權威가 있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이 영광스럽게도 느껴야 되고 또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 주니까 몽땅 다 준다 하는 그런 나누어 주기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方式에서 止揚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그 首都 서울을 와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나 드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女秘書까지 두 사람을 다 授與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 보이고 또 미스 유니

버스 80大會 때도 全員을 다 줬는데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라고 그러면 眞善美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補助해 가지고 準 眞善美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한 6名 정도를 차라리 授與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한 그룹이 왔다고 해 가지고 그 그룹을 몽땅 주는 그러한 방법은 앞으로는 좀 止揚되면서, 주는 건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局長님이 判斷을 해 보시면 과연 過去에 授與됐던 것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改善할 방법이 있는 건지 그 個人的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權會榮; 네, 없으시면 지금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李 委員님께서 먼저 授與 對象者는 市場이 市議會 同意를 얻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名譽市民證은 앞에서 報告를 드렸습시다마는 164名을 저희들이 授與를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어떤 惠澤을 저희들이 주어 보거나 또 그쪽에서 要求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앞에 提案說明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은 외국사람이지만 우리 政府 또는 서울市를 위해서 크게 功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名譽市民證을 주자하고 市長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議會에 報告를 드려서 議會의 同意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功勞가 있었구나 쥐도 좋다 이렇게 同意가 계시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아까 같이 答辯을 들을 意向이 계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市

長이 判斷해서 단순히 우리나라를 訪問하거나 그 貴賓에 대해서 市長이 줄 필요가 있다고 判斷되었을 때 거기에 아까 張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個人的으로 동감이 갑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國家的으로 그 나라하고 여러 가지 問題가 계류가 돼 있을 때 그 분들에게 국가에서 서울市 名譽市民證을 市長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政府의 要請이 있을 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外交上 필요에 의해서 政府에서 勳章주기는 그렇고 차라리 서울市에 이 서울市가 千萬 都市이고 세계의 都市이기 때문에 外國人들은 우리 名譽市民證 하나만이라도 자기 평생에 큰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것이 授與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張委員이 質問하신 그런 충고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어차피 이걸 이제 위에서 指示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제 審査는 저희 局에서 모든 것을 調査를 하고 建議를 올리고 그 決定節次를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李 委員께서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이왕 名譽市民이나 똑같이 그런 要求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意見이 나왔는데 行政逐行上 事實上 儀禮的으로 와서 貴賓에게 주는 것은 거의 그런 惠澤을 원하지를 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貴賓에게 주는 것은 市長이 決定해서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市에 현저하게 貢獻을 하였거나 또 現在 하고 있는 그런 분은 議會에 報告드려서 그 분의 功績도 알리는 겸 또 그 분이 필요할 때는 모든 行政上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줄

경우에 議會 同意를 얻어서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가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고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 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意見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러면 原案대로 滿場一致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별도 부록에 실음)

委員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長時間에 걸쳐서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議事日程이 모두 끝났으므로 散會를 宣布하겠
습니다.

(議事棒 3打)

대단히 감사합니다.

(16時 38分 散會)

.....
(書面答辯書)

(뒤에 실음)

○出席委員

權會榮 金相復 曹相彩 劉起鍾

孫允準 金熙健 李鍾學 孫馥
李汪烈 張精一 金仁雨 李喆鎬
趙貞順 李載震

○專門委員

鄭永國

○出席 公務員

文化觀光局

文化觀光局長 金明柱

文化課長 俞永植

文化財課長 金根培

觀光課長 李榮宰

國際交流係長 李宗起

文化係長 趙暻鎬

世宗文化會館

世宗文化會館館長 權彝肯

事務局長 宋容皙

庶務課長 尹吉燦

施設管理課長 金雲鳳

舞臺公演擔當官 張基豐

.....
(부록)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